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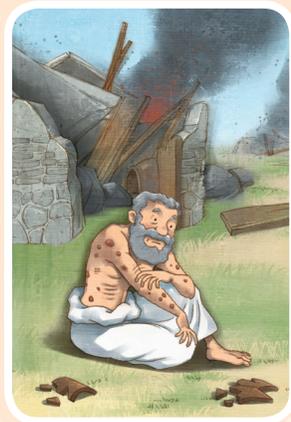
(가림막으로 21-1의 ‘고난받는 욥’을 가리고, ‘고난받기 전의 욥’을 보여주며)

옛날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욥은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욥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갔어요.

하나님도 이런 욥을 칭찬하셨어요.



(가림막으로 21-1의 ‘고난받기 전의 욥’을 가리고, ‘고난받는 욥’을 보여주며)

그런데 욥에게 아주 힘든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욥에게 종들이 찾아와 말했어요.

“큰일 났어요! 나쁜 사람들이 주인님의 동물들을 모두 빼앗아 갔어요.”

“큰일 났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정말 큰일 났어요! 갑자기 엄청나게 센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집에 있던 주인님의 아들딸들이 모두 죽고 말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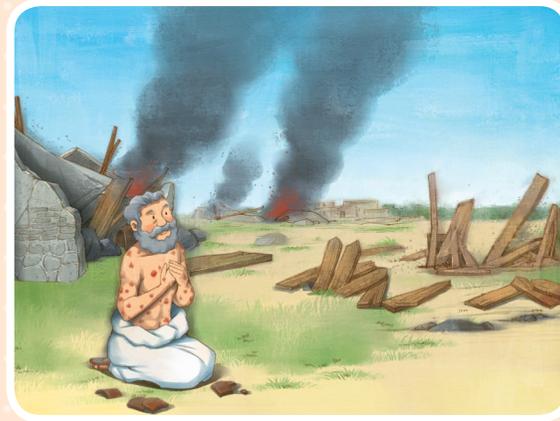
욥은 **한꺼번에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는 온몸에 **피부병까지** 생기고 말았어요.

가림막 활용 방법







(21-2를 보여주며) 큰 어려움을 당한 욥은 너무 괴롭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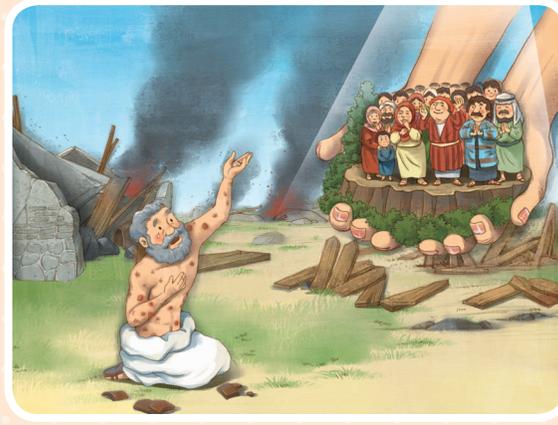
그러니 다시 가져가셔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욥은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욥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힘든 일이 다 끝나면 자신의 믿음이 금처럼 빛나고 단단해질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욥 23:10).

이렇게 욥은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굳게 믿었어요.





(21-3을 보여주며) 하나님은 이런 욥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힘든 일을 겪는 욥을 찾아와 말씀하셨어요.

“욥아, 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니?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니?

이 모든 것을 나는 알고 있단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가 만들었고, 또 내가 나의 뜻대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도 모두 알고 계시는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의지해야 해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욥 42:2)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어려움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잘 믿은 욥에게 복을 주셨어요.

욥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며, 행복하게 살았어요.